“ 피곤하다. ”

‘ 요즘 내내 그런 생각만 한 것 같다. 시간은 더디게 가고, 지방이라 그런지 할 일은 너무 없고. ’

얼마 전에 드디어 MAM 사용 자격증을 따고 지방 병원에 일자리를 얻었다.

참, 처음에 MAM이 공개되었을 때가 떠오른다.

‘ 게임에라도 쓰이게 될까.. ’

생각하면서 흥미 있게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고 있었던 나는,

의료 기계라는 말을 듣고 어린 시절 의사의 꿈을 떠올렸다.

‘ 프로그램으로 구현된 환자의 기억을… ’

이라는 구문을 보곤 결국 프로그래머가 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그날로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는 프로그래머를 그만두고,

의료 자격증이지만 허들이 낮다고 평가받던 MAM 자격증을 따기로 했다.

그랬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가만히 MAM의 모니터만 바라보던 나에게, 이메일이 도착했다.

“ 스캔 부서 복 팀장..? ”

부서와 이름을 듣자마자 나는 새로운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 마침 심심하던 차인데 잘됐다. ’

라고 생각하며 이메일을 다 읽었다.

별 내용은 없었지만 정리하자면 새로운 환자가 왔고, 이미 스캔과 상담이 끝났단다.

여기 사람 표시 아이콘을 누르면 됐었지. 참 맥없는 UI의 OS다. 누가 만들었는지 참.

‘ 화가인데 흰색에 거부감을 느낀다고?

참 기묘한 증상이네 ’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VR을 쓰고, 기억에 접속할 준비를 했다.

다른 사람의 기억에 들어간다는 느낌, 참 묘한 느낌이라고 생각하던 차에 접속에 성공했다.

접속에 성공하자마자 보이는 건 가정집인 것 같았다.

“ 투룸에 침대도 킹사이즈고.. 꽤 돈이 많은 사람인가?

요즘 집세가 엄청나게 올라서 혼자서 이렇게 사는 건 힘들 텐데? ”

현실에 대해 불평하다가, 서재로 보이는 방에 들어가자 세 개의 캔버스가 놓여 있었다.

그 중 하나의 캔버스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 그림과 상호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다가가서 상호작용해보니 역시나 다른 기억으로 이어져 있었다.

잠깐의 생각 후, 나는 주변을 살펴보다가, 환자의 기억 복제본이

“ 아마 이때 생애 처음으로 나루터에 와봤던 것 같아. 평소엔 오지 않으니까. ”

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 누군가랑 같이 나루터로 여행 온 건가? ’

라고 생각하며 주변을 살펴보니 주변에 흰색 물감 튜브가 놓여 있었다.

아마 이걸로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차,

어떤 물체는 기억 속의 다른 물체들과 상호작용하여, 환자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정보가 떠올랐다.

한참을 헤맨 후에, 나는 이 물감 튜브가 물체의 색깔을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텐트 앞의 놓여 있는 캔버스의 스케치에 가까이 가자,

색깔을 흡수한 물감 튜브에서 색이 빠져나가 그림으로 들어갔다.

“ 그림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색을 모으면 되는 건가 ? ”

어찌저찌 텐트와 의자의 색깔을 빼낸 나는 한가지,

해가 떠오르는 호수의 그림이 색깔이 차오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 무슨 호수 색깔이라도 빠지나? . ’

색깔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나는, 부둣가에 멈춰있는 나룻배를 보았다.

‘ 설마 이 배를 타고 저기 떠있는 해라도 가봐야 하는 건가? ’

하지만 다른 수가 없던 터라, 결국 나는 나룻배에 타고 노를 젓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참을 젓고 보니, 해가 그렇게 멀리 있지 않고 계속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해에 마침내 배가 닿아 멈추자, 처음 듣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 노을 지는 해는 정말 예쁜 것 같아. 그렇지? ’

이어서 기억도 한 마디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

‘ 그런가.. ’

‘ 들린 목소리는 아마 환자와 같이 여행 온 사람 같은데… ’

아마 이 환자의 기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 같아 보였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해의 색깔이 전부 물감 튜브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고,

이내 물감 튜브를 전부 채웠다.

그와 동시에 주변이 어두워졌다.

“ 이거면 노을 지는 호수가 그려지려나? ”

나는 다시 노를 힘겹게 저어 부둣가로 돌아와서 그림 근처로 향했다.

“ VR인데 왜 힘들게 내가 노를 저어야 하는거야.. ”

투덜거리면서 나룻배에서 내려, 그림 근처로 가니 물감 튜브에서 색이 빠져나가

그림의 마지막 남은 빈 공간을 채웠다.

‘ 노을 지는 저 해를 보며 저 해가 잡고 싶다고 말했었어. ’

기억의 말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없이, 섬광이 반짝이더니 다른 공간으로 이동되었다.

주변을 돌아보니 아까 봤던 풍경의 집 안이었다..

“ 왜 집에 돌아온거지? ”

알 수는 없었지만 기억은 원래 중구난방이니, 다시 달라진 건 없는지 살피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서재에 있는 그림 세 개 중에 하나의 그림이 더 그려진 걸 확인했다.

“ 에메랄드 그림인가? ”

그림을 살펴보던 차, 그림과 상호작용해보자 다시 다른 기억으로 이어졌다.

주변을 살펴보니 일종의 미술관 같은 장소인 것 같았다.

이번 기억도 분명 환자와 관련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 할 때쯤.

‘ 여자친구와 미술관에 가곤 했었어. ’

기억이 말하자, 나는 지나온 나루터에서 들렸던 여성의 목소리는 환자의 여자친구일 것이라고 금방 추측해낼 수 있었다.

‘ 쳇.. 부럽네.. ’

잠깐 딴 생각을 하긴 했지만, 나는 앞에 보이는 그림 앞으로 다가섰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림 밑에 버튼들이 놓여져 있고 오른쪽에는 완성된 그림이 작게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디에 쓰는 버튼인지 알 수가 없어서, 한번 눌러보기로 했다.

찰칵.

버튼 눌리는 소리와 함께, 앞에 있던 그림의 작은 부분만 색깔이 변했다.

‘ 아마 버튼마다 각자 구역의 색깔을 바꿀 수 있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

완성 되어 있는 그림에 맞게 색깔을 바꾸자, 기억이 말하는 것이 들렸다.

‘ 오래된 작품이야. 추상화. ’

기억이 말했다.

‘ 추상화가 오래됐다니 신기하네. ’

라고 생각하며 주변에 걸려있는 다른 그림들도 색깔을 맞추기로 했다.